

'만들어진 그곳 dream' 특별전

한국전통문화전당 예술인지원사업 네번째 전시... 이보영 작가 특별전 25~31일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예술인지원사업(기획전시)의 네번째 전시로 이보영 작가의 '만들어진 그곳 dream' 특별전을 25~31일까지 일주일 간 전당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보영 작가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 '상생'이라는 주제로 자연과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채집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나열하고, 이를 화폭에 담아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만들어진 그곳 △giraffe dream △somewhere that place △어떤 모습 사이 △어떤 그곳 등 한국화 작품 36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보영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자연을 불러 넣어 인간과 자연이 이웃이며 소통하는 삶의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했다"며 "상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뤄지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따뜻함,



이보영 작가 작품

그리고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수많은 변화가 가득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작품을 통해 친근한 소통이 이뤄지는 사회로 많은 이들이 삶의 희망과 따뜻함,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작가는 동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를 취득했다. 전주와 서울, 뉴욕 등에서 18번의 개인전을 비롯해

Parts of a Whole, 경계를 넘어서, 1980년대와 한국 미술, 전북미술의 오늘진, 청년작가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또한 △2023 전북도립미술관 전북청년 2024 선정 △2020 전라청년미술상 수상 △2016 광주신세계미술제 선정 작가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당 홍보팀 전시담당(063-281-1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웹진 마중 2호 발행

도내 · 외 각종 문화예술관광 관련 정보 담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0일 웹진 마중 2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마중'은 지난 2022년부터 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도내·외 각종 문화예술관광과 관련된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를 담아 독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웹진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웹진 마중 2호에서는 '문화의 보편적 권리'라는 주제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 오민정 팀장이 화두를 던진다. 그리고 JB시선집중에서는 이와 관련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즉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주제로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이민아 교수가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예우 최예지 대표, 배리어프리 여행 콘텐츠를 기획·운영중인 무빙트립 신현오 대표의 인터뷰와 각종 문화관광 소식으로 그 볼거리를 더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웹진 마중 독자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웹진 마중 2호 화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다"며 "재단은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해 장벽 없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호 인터뷰에 참여한 무빙트립 신현오 대표는 "여행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되지 않는 모두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3일까지 웹진 2호 발행에 따른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웹진 홈페이지(<https://jbmjng.or.kr/>)에 접속해 웹진 2호를 읽고, 퀴즈의 정답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굿네이버스 전북본부 '맞손'

지역사회 협력 체계구축 위한 협약... 국가공모 선정 국비 지원 사업 '꿈의 맨스팀' 협업 추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19일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환)와 지역사회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팔복예술공장(덕진구 구렛들1길 46)에서 진행. 백옥선 대표이사,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 및 양 기관 직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가족 중심 문화기반 사업 발굴 및 추진,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인권교육 추진,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 △사회소외계층의 권익 증진 및 복지 실현, △문화예술을 통한 건강한 가정 문화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있다.

이에 양 기관은 2023년 국가공모에 선정돼 국비로 운영되는 '꿈의 맨스팀 운영 사업'에 협력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소외계층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협력의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 대상을 위해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19일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지역사회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김경환 본부장,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

전북 관광두레 PD·주민사업체 연장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참여할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를 오는 31일까지 연장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1일 재단에 따르면 기간 내 미처 지원하지 못한 전북도민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보다 많이 발굴하기 위해 연장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사업에

이미 선정된 4개 시·군(전주·완주·고창·임실)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활동할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다.

주민사업체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민여행사, 숙박, 체험, 식음료, 기념품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사업체며, 관광두레 PD는 예비 주민사업체 발굴과 기존 주민사업체 육성 등 재단과 주민사업체 간의 소통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재단은 추후 심사를 통해 주민사업체 8개, 관광두레 PD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부안군민 '나도 아티스트3' 공연

부안군은 24일 오후 7시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2023 나도 아티스트3' 공연을 무료로 개최한다.

'나도 아티스트3' 공연은 부안 출신 및 부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연주자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준비되었다. 재능은 있으나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한정적이었던 군민들에게 무대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활동을 복돋아 주기 위해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유수영)와 부안군민(클라리넷,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자 등)이 함께 평소 공부했던 곡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공연은 2023년 전라북도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북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후원으로 개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